

무항생제, HACCP, G마크 획득으로 안전성 입증



▲ 이만형 대표

- 1983 천안연암대학교 낙농과졸
- 1985 길샘농장 운영
- 1995 무창계사 신축
- 1999 다한영농조합법인 결성
- 1999 국무총리 표창(새양축가상)
- 2007 경기도지사 표창(농어민대상)
- 2008 무항생제, HACCP 인증 획득
- 2009 계란자판기 사업 전개
- 2009 G마크 획득(다한영농조합법인)

경기도 광주를 중심으로 채란업계 대표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다한영농조합법인(대표 이만형)이 지난 7월 경기도로부터 G마크 인증을 받음으로써 조합원이 생산하는 모든 계란에 대해 안전성을 재 확인받게 되었다. 따라서 본고는 G마크 획득의 의미와 채란업의 발전에 노력하고 있는 이만형 대표(길샘농장, 다한영농조합법인)를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어렸을 때부터 맺은 양계 인연

이만형 사장은 부친께서 양계장을 경영해 왔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양계업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본격적으로 양계업에 뛰어들은 것은 학교와 군복무를 마친 후인 1985년부터이며, 부친께서 몸이 불편하여 농장을 꾸려나가기 어렵게 되면서 1988년부터는 가업을 물려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젊은 나이에 일찍 가업을 잇게 된 이만형 사장은 당시 7만수를 운영할 정도로 큰 규모를 관리했지만 3개 지역에 농장이 떨어져 있고 재래식 계사였기 때문에 농장을 관리하기가 무척 번거로웠다. 따라서 농장관리의 효율성과 경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광주시 초월면 학동리에 무창계사 2동을 신축하여 6만수 규모로 운영해 나가고 있다.

다한영농조합 결성으로 돌파구 마련

1995년 기사신축에 많은 자본을 투자함과 동시에 IMF 경제위기를 맞이하면서 최대의 위기를 맞기도 하였으나 1999년 다한영농조합법인을 결성하면서 그 돌파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2세양계인들로 구성된 다한영농조합법인(<http://www.dhegg.co.kr>)은 처음엔 친목을 목적으로 결성이 되었으나 사료, 난좌, 약품 등 공동구매를 통해 생산비 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고, 2005년부터는 국내 최초로 양계자조금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면서 경영여건도 크게 개선되었다.

이만형 조합장은 “경쟁관계에 있는 채란업자들이 단체를 형성해 지금까지 한 번도 마찰이 없이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서로의 가족같은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다한 가족은 11명으로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모든 농장이 무항생제와 HACCP 인증을 획득할 정도로 다한의 활동사항이 채란양계인들의 모범이 되고 있을 정도이다.

G마크 획득과 향후 계획

경기도지사가 부여하는 G마크 인증은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관리조례에 의거, 도와 소비자단체의 평가 및 심사, 안전성 검사, 현지실사 등을 통해 믿을 수 있는 우수 농특산물에 부여되고 있으며, 1년마다 정기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하는 제도다. 계란으로써는 광주지역에서는 한국양계농협과 함께 유일하게 G마크를 획득하였다.

무항생제, HACCP 인증에 이어 G마크까지 획득하면서 계란의 안전성을 인정받은 다한영농조

합은 학교 등 단체 급식소에 납품을 준비하는 등 분주하다. 향후 계란 GP센터 건립, 냉동탑차 확보를 통한 콜드체인 시스템 운영 등이 과제로 남게 되었으며, 조합원은 물론 광주시 등과 계획을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다.

‘계란자판기’ 인기 상승

이만형 대표는 최근 각종 방송국으로부터 인터뷰가 쇄도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신선한 계란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계란자판기’를 통해 성공을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만형 대표는 ‘우리를 믿고 어려운 결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광주시 조억동 시장과 최정원 축산팀장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현재 광주 시내에는 시청을 비롯해 8개 지역에 ‘계란자판기’가 설치되어 소비자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으며, 타 지역에서도 벤치마킹 사례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산란계 의무 자조금조기 정착을

이만형 대표는 현재 채란업계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의무자조금 제도 정착임을 피력했다. 길샘농장은 6월 1일 12,000수를 출하하면서 6월부터 의무자조금 거출 대상자가 되면서 도계장과 노계유통을 통해 자조금을 자진하여 납부할 정도로 자조금 정착에 큰 힘을 불어넣고 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도 안 내는데 왜 자진해서 내느냐’는 빈축을 사기도 했지만, 모든 채란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다고 언급하고 모든 채란인들이 참여하여 조기에 계란의무자조금이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랐다.

(정리 | 김동진 편집장, djkim300@hanmail.net)